



1조 벤처기업 육성으로 재도약의 틀을 짜자

불경기라 다들 한숨이 깊다. 하지만 불경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우리 벤처기업들에게는 이 위기 역시 기회일 수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벤처, 대한민국 고용창출의 견인차이자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인 우리 벤처기업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이에 이번 호부터 총 5회에 걸쳐 벤처재도약을 주제로 벤처기업인들의 릴레이원고를 기획한다.

벤처재도약을 향한 릴레이 기고문 그 첫 번째, 휴맥스 변대규 대표의 '글로벌 챔피언십 육성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글 / 변 대 규 (휴맥스 대표)

수출만이 살길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탄생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즉,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외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IT벤처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경쟁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경제의 저성장, 신용불량자 양산, 출산을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내수시장, 혹은 내수 산업 기반으로 경제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여전히 수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대기업 정책에 의한 중후장대형 산업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IT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해법, 1조원 규모의 중견 IT기업

우리는 늘 한국이 IT강국이라고 얘기한다. IT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몇몇 거대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재의 모습들이 건강해 보이는가? 우리가 잘한다는 IT산업만 보더라도 그 생태계가 썩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점점 거대 기업 몇 개만 공룡화되고, 그 밑의 중소기업과 생계형 가족 기업이 여러 개 있는 식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은 계속 순환해야 하는데, 현실은 고인 물처럼 보인다.

수출 주도의 IT산업을 우리가 끌고 나가고자 했을 때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중간에서 받쳐주는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즉, 1조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IT수출 기업을 향후 5년 안에 10개정도 만들어 낸다면 생태계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질 것이다. 큰 기업이 있고, 세계시

“수출 주도의 IT산업을 우리가 끌고 나가고자 했을 때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중간에서 받쳐주는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즉, 1조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IT수출 기업을 향후 5년 안에 10개정도 만들어 낸다면 생태계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질 것이다.”

장에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중견 IT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밑에 중소기업이 있는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회복과 정부의 지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면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 자본, 인력 등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던 것들이 골고루 사회 여러 분야에 나누어짐으로써 사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활력있는 중견기업에 자본이 들어갈 때 자본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기업문화는 어느 정도 성장에 이르면 더 혁신해서 크게 성장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조원 되는 중견기업이 성장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면 죽어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IT쪽에서 계속해서 성공모델이 나오고, 기여에 대한 박수를 받으면 요즘 골치 아픈 이공계 문제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

기술과 양산, 브랜드가 콤비네이션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연대 시절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굉장히 정교하고 간접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지난 정부의 벤처정책은 한국경제의 돌파구 중의 하나로 IT 벤처를 비롯한 지식집약 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왔다. 그것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능성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행착오는 끝났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벤처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벤처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은 오늘의 벤처산업육성환경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탄력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과거 벤처산업 육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경제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을 것이다. 그나마 한국경제에 활력이 되었고, 무엇인가 벤처기업에 기대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벤처기업은 그동안 잘못된 것, 시행착오 등도 많았으나 또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배웠고, 그래서 강해졌다”가 아닌 “거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사회분위기를 보면 안타깝다. 계속 발전시켜야지 과거의 잘못했던 기억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세련된 규제를 통해 글로벌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작업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